

KOSDAQ | 자본재

에스엠코어 (007820)

반도체·2차전지로 성장하는 SK그룹 물류자동화기업

체크포인트

- 동사는 1972년에 설립, 1978년 국내 최초로 자동화창고 시스템을 국산화한 기업으로 2017년 대주주가 SK(株)로 변경, SK그룹의 물류자동화 부문 핵심 계열사로 성장. 2022년 기준 매출비중은 반도체 부문 30%, 2차전지 부문 28%, 일반 물류 부문 40% 차지, SK하이닉스, SK온이 최대 고객사로 SK그룹 Captive 매출비중은 2020년 25%에서 2021년 40%, 2022년 64%로 확대
- 투자포인트: 1) 2차전지 시장 진출로 반도체에 이어 SK그룹 매출비중 확대, 2) 2차전지 신규수주 랠리로 수주액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 3) SK온,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거점 투자로 생산능력 6.5배 성장 전망
- 2023년 매출액은 1,555억원으로 YoY +35.2%, 영업이익은 33억원으로 YoY +64.2% 증가할 전망. 2022년 SK온의 헝가리 및 중국 옌청공장 대규모 수주(3건 953억원)에 이어 올해 4월에도 SK온-포드 합작법인인 BOSK로부터 440억원을 수주한데 이어 글로벌 업체로부터 2차전지 전극조립공정 313억원 추가 수주에 성공하며 2차전지 수주랠리 지속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벨류에이션 지표



주: PSR, PBR, PER은 2022년 기준, Trailing,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에스엠코어 (007820)

Analyst 이원재 wonleewj@kirs.or.kr
RA 손현정 sssson@kirs.or.kr

KOSDAQ
자본재

SK그룹 스마트팩토리 부문 핵심 계열사

동사는 1978년 국내 최초로 자동화창고 시스템을 국산화한 기업으로 2017년 SK그룹 계열사로 편입. 2022년 매출비중은 반도체 30%, 2차전지 28%, 일반 물류 40% 차지, SK하이닉스, SK온이 최대 고객사로 SK그룹 Captive 매출비중은 2022년 64%로 확대

2022년부터 2차전지 부문 수주밸리로 고성장 국면 진입

2017년 SK그룹 편입 이후 SK하이닉스향 반도체 매출이 증가한데 이어 2022년부터 SK온 헝가리공장 및 중국 연청공장에서부터 3건의 총 953억원 물류자동화시스템 수주, 2023년 4월 들어 BOSK 및 글로벌업체로부터 2차전지 전극조립공정 수주 밸리 지속. SK온의 글로벌 생산능력이 2030년까지 6.5배 성장하면서 동사의 동반성장 수혜 기대

2023년 매출증가율 +35.2%, 영업이익증가율 +64.2% 전망

2022년 수주한 SK온 헝가리공장과 중국 연청공장 물류자동화 시스템 수주분이 2023년 매출액에 집중 반영 예상, 2차전지 부문 매출비중은 2022년 28%에서 2023년 50%로 확대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억원)	1,040	764	1,150	1,555	1,780
YoY(%)	-18.8	-26.6	50.6	35.2	14.5
영업이익(억원)	16	-25	20	33	49
OP 마진(%)	1.5	-3.3	1.7	2.1	2.8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	-6	25	36	50
EPS(원)	-32	-29	123	178	248
YoY(%)	적전	적지	흑전	44.7	39.1
PER(배)	N/A	N/A	46.2	38.7	27.8
PSR(배)	1.4	1.9	1.0	0.9	0.8
EV/EBIDA(배)	29.7	858.2	22.7	21.6	17.5
PBR(배)	2.1	2.1	1.6	1.9	1.8
ROE(%)	-0.9	-0.8	3.6	5.0	6.7
배당수익률(%)	1.0	0.7	1.2	1.0	1.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5/2)	7,140원
52주 최고가	8,040원
52주 최저가	5,280원
KOSDAQ (5/2)	855.61p
자본금	100억원
시가총액	1,430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0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51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9억원
외국인지분율	1.41%
주요주주	SK 외 2인 27.3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4	32.7	6.6
상대주가	3.4	8.2	12.3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IC', 활동성 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사업영역 및 연혁

에스엠코어 매출 비중
반도체 32%, 2차전지 28%,
일반물류 40%

1972년 설립된 에스엠코어는 SK그룹 스마트 물류 자동화 기업으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설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2년 사업보고서 상 연결매출 비중은 자동화설비 88%, AS 매출 12%이다.

주요 사업영역은 1) 반도체 2) 2차전지 3) 일반물류로 구분되며, 2022년 연결매출 비중은 각 32%, 28%, 40%이다. SK向 Captive 고객사 비중이 64%로, SK하이닉스 30%, SK온 28%, 기타 6%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부문

동사는 2017년 SK그룹 편입 후,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 및 물류 이송장비 자동화시스템 공급을 시작했다. Tray Stacker 납품을 시작으로 AGV 등 반도체 後공정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으며, 2021년부터는 N2 Stacker, FOUP Conveyor 등 前공정에 이용되는 반도체 물류 이송장비를 공급했다. Stacker는 자동 입출고 장비, AGV는 무인반송차, Conveyor는 이송설비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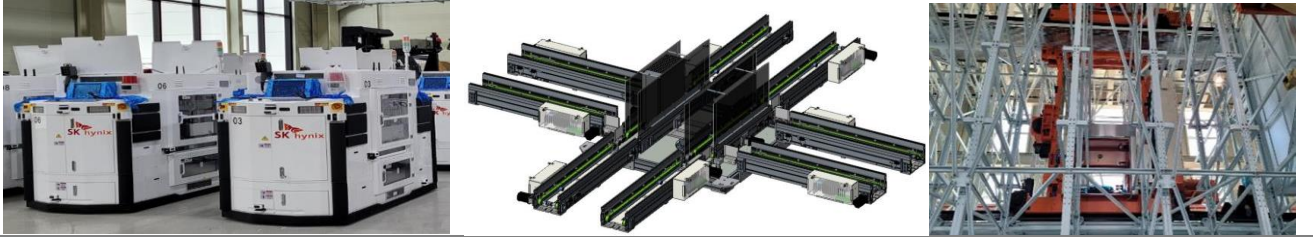
2차전지 부문

동사는 2차전지 물류 이송설비 사업을 영위하며, 2차전지 공정 중化成공정과 반송물류의 자동화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2차전지 後공정인化成공정의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레이아웃 설계, 물동량 계산 등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한다. 반송물류 시스템은 2차전지 전극공정과 조립공정 사이의 물류 흐름을 이어주는 자동화 설비이다. 2차전지 물류 이송설비의 주요 제품은 Stacker Crane(제품을 수납하는 Rack에서 제품 입출고에 사용되는 크레인), Rack, Conveyor 등이 있다. 동사는 2022년 SK온 헝가리공장에 반송물류 자동화시스템, 중국 연청공장에化成공정과 반송물류 자동화시스템 공급 계약을 달성했다.

일반물류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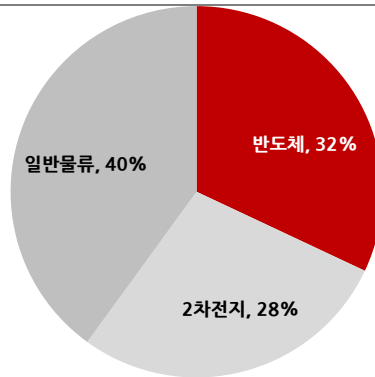
일반물류 자동화는 동사가 국내 최초로 자동화 창고 시스템을 실현시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사업이다. 타이어, 석유화학, 제약, 식음료, 자동차,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 레퍼런스를 보유, 창고 자동화와 공정 자동화 등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소 설비를 자체 공장에서 생산 가능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도장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2015년 인도, 중국 등 이머징마켓을 중심으로 해외 타이어 산업 자동화설비 부문에 진출하였고, 누적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타이어, 석유화학 등 산업군을 확장해 나갔다. 현재 주요 고객사로는 인도의 MRF, Reliance, CEAT, HMEL, 중국의 링룽타이어 등이 있다.

주요 제품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GV, Conveyor, 스택커 크레인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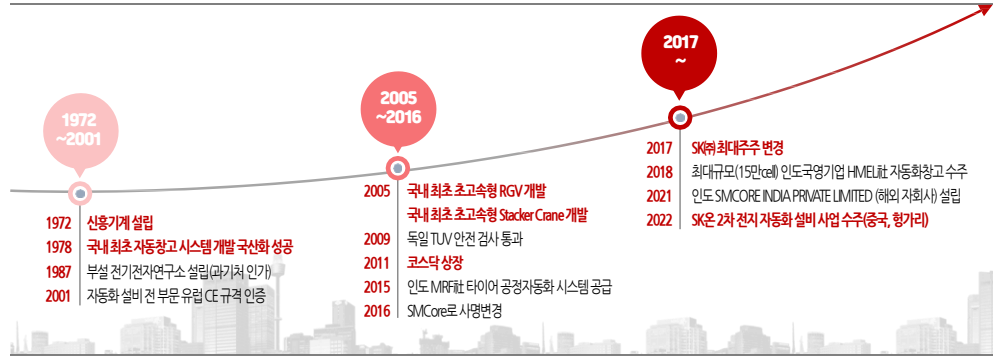
1972년 설립된 물류자동화 전문 기업으로 2017년 SK그룹 계열사로 편입

에스엠코어는 1972년 산흥기계를 모태로 설립되었다. 1978년 국내 최초로 자동창고 시스템 개발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내 자동화창고 시장에 기틀을 마련했다. 동사의 초기 사업은 일반 창고 자동화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타이어 사업을 기반으로 외형 성장세에 힘입어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또한 2015년 인도, 중국에 타이어 공장자동화 시스템 공급을 시작으로, 이머징마켓 중심의 해외 수출을 확대해 나갔다.

2017년에는 SK(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며,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이에 SK向 반도체 Clean FA 물류자동화 시장에 진출하였고, 초기에는 창고 물류만 담당했지만, 2018년부터 반도체 後공정 라인 공급에 성공했다. SK 계열사 편입 후, 2017년~2019년 연평균 33% 매출 성장세에 힘입어 2019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 1,281억원을 기록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객사 투자 감소 영향으로 2021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2년 SK온向 2차전지 신사업 진출로 신규 수주가 증가하며, 연결 매출 1,150억원(YoY +50.6%), 영업이익 20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SK온 헝가리공장에 반송물류 자동화시스템, 중국 연청공장에 화성공정과 반송물류 자동화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총 953억원의 수주를 따냈다. 이처럼 SK하이닉스, SK온 등 SK向 사업 성과가 안정화되면서, SK그룹사 Captive 매출 비중은 2020년 25%, 2021년 40%, 2022년 64%로 확대되었다.

동사는 2022년말 기준 물류자동화 관련 총 1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적용제품별로는 Gantry Robot 7건, Stacker Crane 5건, Stocker 2건, 자동화창고 시스템 2건, 스트레칭 머신 1건, EMS 1건 등이다.

회사 연혁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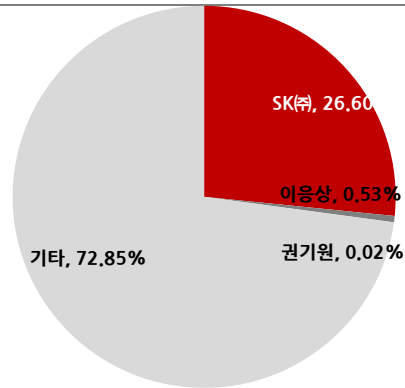
2 주주구성과 종속회사

최대주주 SK(주) 지분율 26.6%

2022년 기준 에스엠코어의 최대주주 SK(주) 지분율은 26.6%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응상, 권기원)의 지분율은 27.2%이다. 자기주식수는 241,237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1.2%에 해당한다.

동사의 2022년 별도 매출액은 1,149억원으로, 연결 매출액 1,150억원의 99.9%를 차지한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SMC 미국법인(지분율 100%)과 인도법인(지분율 99.9%)이며, 매출 규모는 거의 미미하다.

주주 구성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진출 현황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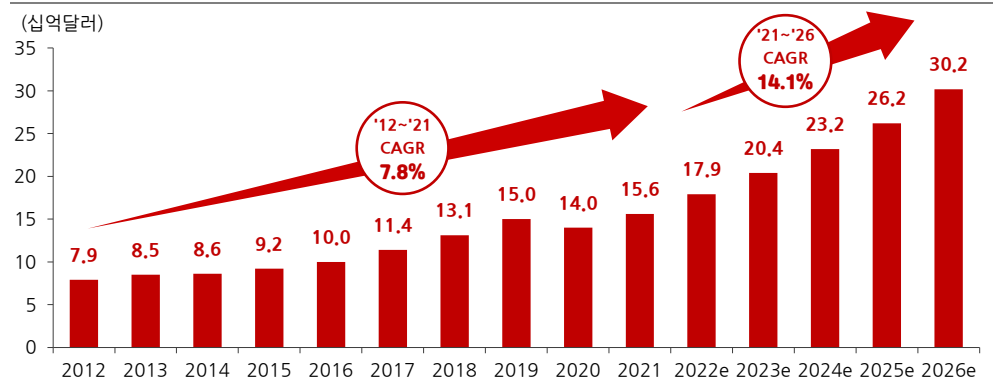
1 일반 물류자동화 산업 동향

글로벌 자동화창고 시장규모는
2021년 156억달러에서 2026년
302억달러로 CAGR 14.1% 전망

Statista 2022 통계에 의하면 글로벌 자동화창고 시장 규모는 2012년 79억달러에서 2021년 156억달러로 연평균 7.8% 성장했으며, 이후 2026년까지는 302억달러로 5년간 CAGR 14.1%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타이어, 석유화학, 제약, 식음료, 자동차, 냉동창고 등의 제조부문 사업영역에서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B2C 전자상거래 산업 뿐만 아니라 2차전지와 자율주행·IoT·AI·로봇 등 4차 첨단산업에 반도체 수요가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자동화 창고 투자 수요가 예전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자동화창고 시장 규모 전망



2 물류자동화 수요산업 - 반도체 업황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설비투자
스탠스는 뚜렷한 온도차,
삼성전자는 설비투자액 유지,
SK하이닉스는 2023년 설비투자액
절반 이상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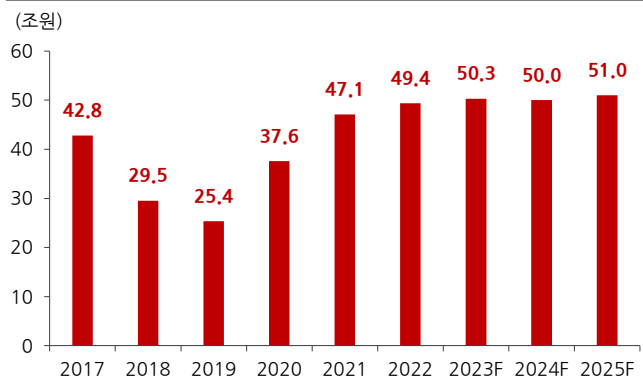
반도체산업은 동사가 2017년 SK그룹에 편입된 후로 전체 매출비중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최대 수요산업으로 반도체업종의 설비투자, 특히 그룹사인 SK하이닉스의 국내의 설비투자에 동사의 물류자동화 매출이 연동된다. 올해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삼성전자는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반도체 부문 매출액이 13.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나 급감하였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8.45조원의 흑자에서 올해 1분기에 4.58조원 영업적자로 전환, 2009년 1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적자를 기록하였다. 반도체 불황이 상반기까지도 지속되고, 재고소진으로 회복세가 빨라야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1분기 반도체 시설투자에 9.8조원을 투입해 전년 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FnGuide 컨센서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설비투자(CAPEX)규모는 2022년 49.4조원에서 2023년 50.3조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상황은 삼성전자에 비해 더욱 어렵다.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은 5조 88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나 급감했으며, 영업손실은 3.4조원으로 창사이래 분기기준 최대폭 적자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해 4분기 10년만에 1.9조원의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2개 분기 연속 적자이며, 적자폭이

대폭 확대되었다. FnGuide 컨센서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CAPEX)규모는 2022년 19조원에서 2023년 7.8조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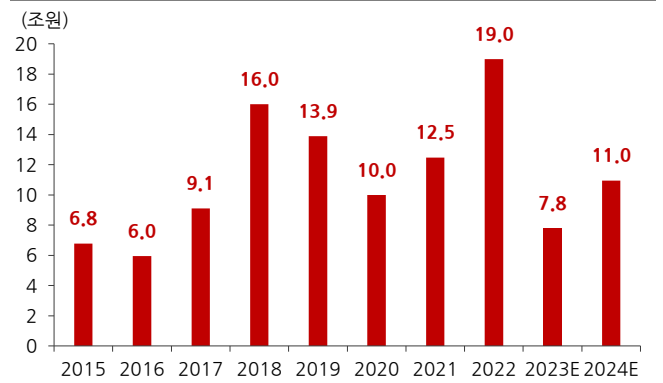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 해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2023년 수급균형을 앞당기기 위해 투자 축소를 공표했으며, Wafer Capa 투자 최소화 및 공정전환 투자 일부 지연에 따라 DRAM/NAND 웨이퍼 생산량이 감소하고 선단공정 비중도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삼성전자 CAPEX 컨센서스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 CAPEX 컨센서스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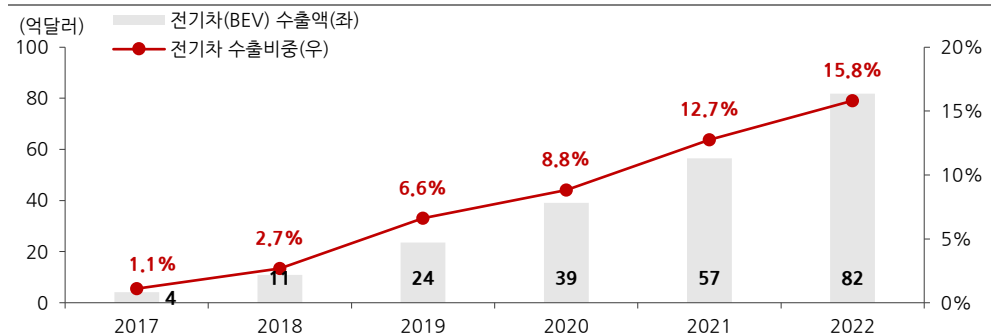
3 물류자동화 수요산업 - 2차전지 업황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맞물려
2차전지 자동화설비 수요는
동반 성장 국면

전기차와 2차전지 사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 공장에 대한 물류자동화 시장도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2차전지 시장에 필요한 물류자동화 솔루션 시장 규모는 아직 구체적인 시장 통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세와 맞물려 자동화 설비 수요도 빠른 속도로 동반성장이 예상된다.

관세청 수출통계에 의하면 국내 순수전기차(BEV) 수출액은 2017년 4.2억달러에서 2022년 81.8억달러로 5개년간 연평균 성장률 81.1% 고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동기간 전체 승용차 수출액은 2017년 388.3억달러에서 2022년 516.8억달러로 6.2% 성장에 그친 점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승용차대비 전기차 수출비중은 2017년 1.1%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9년 6.6%, 2021년 12.7%, 2022년 15.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전기차(BEV) 수출액 추이 (HS Code 870380)



자료: 관세청 수출통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低탄소정책과 전기차 성능 발전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2030년까지 8.5배 성장 전망, 10개년 CAGR 26.5%

글로벌 低탄소정책으로 자동차업체들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생산 중단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은 2030년 내연기관 판매량을 추월할 전망이다. SNE리서치는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21년 640만대로 시장 점유율이 9%였으나, 2030년 5,489만대로 증가해 시장점유율 57%를 차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을 추월할 전망이다. 환경적인 이슈와 전기차 배터리의 비약적인 성능 발전으로 전기차시장은 10년內 8.5배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26.5%이다.

국내 배터리3사 생산능력은 2030년 1,617Gwh로 10년간 CAGR 25.5%로 성장 전망

SNE리서치의 전망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3사의 합산 생산능력은 2021년 209Gwh에서 2025년 713Gwh로 3.4배 증가하고, 2030년에는 1,617Gwh로 증가해 10개년 평균 CAGR 25.5%로 성장할 전망이다. 업체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은 2021년 140Gwh에서 2030년 778Gwh로 10개년 CAGR 21.0%, SK온은 2021년 40Gwh에서 2030년 465Gwh로 CAGR 31.3%, 삼성SDI는 2021년 29GW에서 2030년 374GW로 10개년 CAGR 32.9%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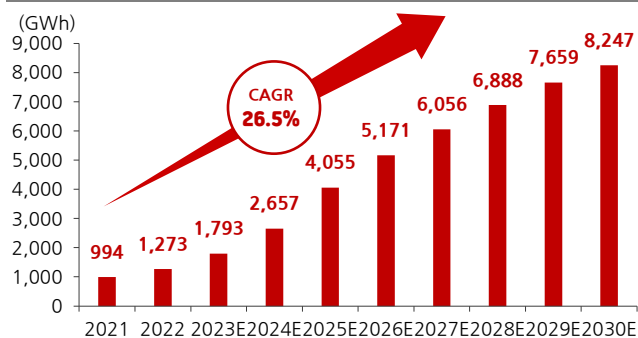
2차전지 섹터는 물류자동화 수요 산업 중 최대 성장률 시현 중, 2차전지 특화 물류자동화업체로는 코윈테크가 고성장세

국내 물류자동화 수요산업 중에서 최근 성장세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차 2차전지 섹터이다. 국내 배터리3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등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차전지에 특화된 물류자동화 설비투자 수요도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물류자동화업체 중에서 2차전지에 특화된 업체는 코스닥 상장사인 코윈테크이다. 코윈테크는 2차전지 前 공정과 後공정에 필요한 물류자동화 설비를 동시에 구축가능한 업체이다. 코윈테크는 1998년 설립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반도체, 석유화학, 제약,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자동화장비를 제조, 납품하면서 업계 리더십을 축적하였으며, 2012년부터 2차전지 공정 자동화시스템을 제조하기 시작하여 국내외 배터리업체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윈테크는 2차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전체 공정 Full 자동화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축적된 기술력과 리더십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 등 글로벌 2차전지 제조사들의 공정 자동화시스템을 납품하며 글로벌 판매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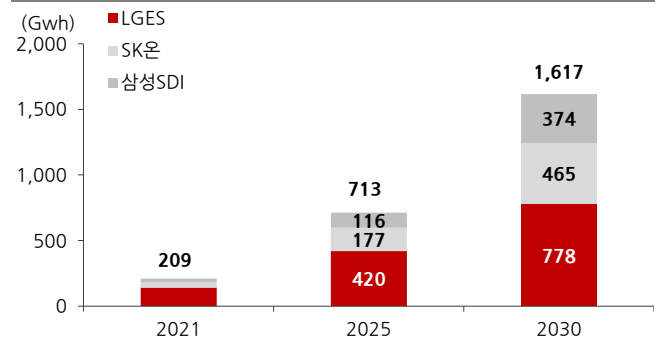
코윈테크의 매출액을 보면 2017년 401억원에서 2차전지 수요 증가 영향으로 2022년 2,012억원으로 5개년간 연평균 38.0% 증가하여 동종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2년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89.1%나 급증하여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 전망



자료: SNE리서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배터리 3사 생산능력 전망



자료: SNE리서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2차전지 시장 진출로 반도체에 이어 SK그룹사 Captive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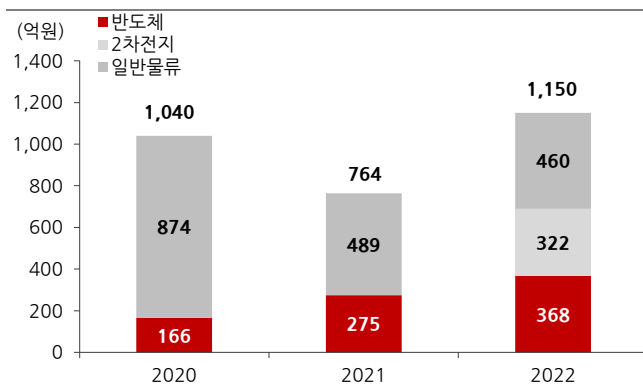
2017년 SK그룹 편입 이후
반도체에 이어 2차전지로 사업
다각화, Captive 매출비중은
2022년 64%까지 확대

동사는 2017년 SK그룹 편입 후 물류자동화 부문에서 수십년에 걸친 축적된 경험과 자체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SK하이닉스에 2017년 Tray Stocker(제품보관설비) 납품을 시작으로 AGV(무인반송차), OHCV(오버헤드 컨베이어) 등 반도체 後공정 사업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동사는 2021년부터 N2 Stocker(반도체공정 제품보관설비), FOUP(Front Opening Universal Pod, 웨이퍼를 이동시킬 때 덮는 용기) Conveyor 등 前공정에 이용되는 반도체 물류 이송장비 공급을 진행해왔다. 동사의 SK하이닉스 반도체향 매출액은 2018년 158억원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21.4%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며 동사의 외형 성장을 견인했으며, 반도체 매출비중은 2018년 17%에서 2022년 30%로 증가하였다.

동사는 글로벌 친환경 전기차 상용화에 따른 2차전지 수요와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2차전지 물류자동화 시장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 SK온의 헝가리 이반차, 중국 연청공장에 2차전지 물류 이송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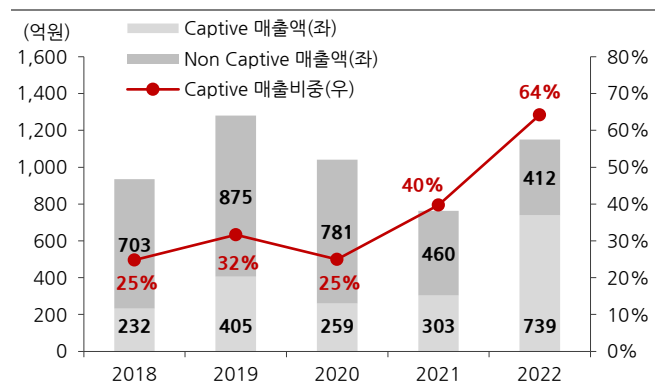
동사는 2017년 SK그룹 편입 이후 SK하이닉스향 반도체 부문 물류자동화 매출 증가로 2017~2019년 3년간 연평균 36.5% 성장해 2019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1,281억원)을 기록했으나, 2020~2021년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 2년 연속 외형이 감소하고 2021년에는 영업적자를 시현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3년만에 2022년 동사의 외형 성장과 턴어라운드를 시현한 것은 SK온향 2차전지 물류자동화 수주 덕분이다. 동사는 2022년 SK온 헝가리공장에 반송물류 자동화시스템, 중국 예청공장에 화성공정과 반송물류 자동화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총 953억원의 수주성과를 올렸다. 2022년 동사의 SK그룹사향 매출액은 739억원으로 전체 Captive 매출비중은 64%를 차지했다. 2022년 SK온향 2차전지 매출액은 325억원이 처음으로 인식되어 2차전지 매출비중은 전체 매출의 28%를 차지했다. 동사는 SK하이닉스향 반도체에 이어 SK온의 2차전지 사업에도 진출하여 SK그룹의 핵심 주력사업인 반도체와 2차전지로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SK그룹 Captive 매출비중 추이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차전지 신규수주 랠리로 수주액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증가

2차전지 수주랠리로 2022년 수주금액은 창사 이래 최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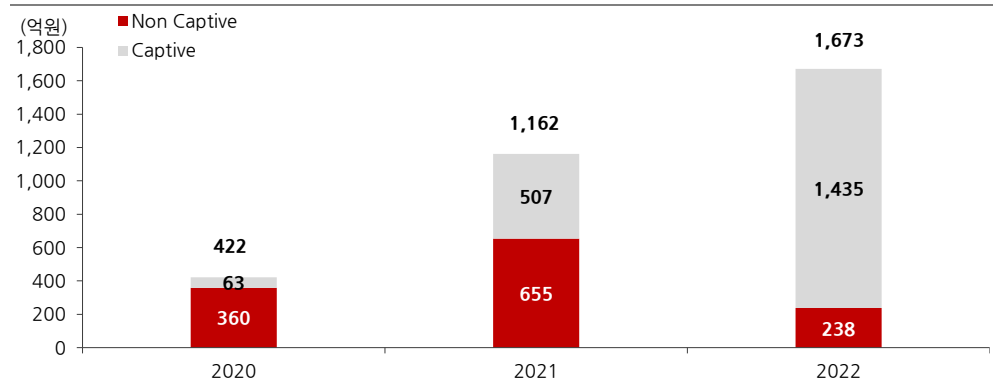
2022년 당기 수주금액은 1,673억원으로 전년대비 43.9% 증가, 창사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사업보고서 상 2022년말 수주잔고는 1,439억원으로 전기말대비 63.7% 증가하였다.

수주액을 SK그룹 Captive 및 Non-Captive로 구분해보면 Non-Captive 수주액은 2021년 655억원에서 2022년 238억원으로 63.7%(-417억원) 감소한 반면 SK그룹向 Captive 수주액은 2021년 507억원에서 2022년 1,435억원으로 183%(+927억원)나 급증하였다. 특히 SK온으로부터 헝가리, 중국 연청공장 물류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3건의 수주계약(총 953억원)을 체결하면서 전체 수주 증가에 기여하였다.

2023년 4월에만 2차전지향 2건의 계약으로 수주액 753억원 추가

동사는 올해 들어서도 2차전지 신규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동사는 4월 11일 미국 SK온과 미국 포드자동차의 합작법인인 BlueOval SK(BOSK)으로부터 전후공정 참고 자동화시스템에 440억원을 수주한 데 이어 4월 21일에는 계약상대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2차전지 전극조립공정 자동화장치 구축으로 313억원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여 2건의 2차전지향 수주계약으로 2022년 매출액의 65%에 해당하는 753억원의 추가 수주를 확보하였다.

수주금액 추이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수주공시 요약

수주내용	계약시작	계약종료	계약금액(억원)	공급지역	진행률('22년말)	계약잔고
MRF Tire Handling Automation System	17.01.11	23.02.28	359	인도	98.9%	4
링롱타이어 광서공장 자동창고 및 물류자동화 PJT	18.06.22	23.02.28	201	중국	84.5%	31
HMEL 자동화창고 구축	18.09.14	23.02.28	898	인도	97.9%	19
MRF TCC GT PJT	19.02.06	23.02.28	81	인도	98.2%	1
피코이노베이션 자동화 창고 구축공사	21.02.23	23.01.31	70	한국	99.8%	0
CEAT CHENNAI TIRE 자동화창고 구축	21.03.15	23.11.15	345	인도	35.7%	222
SK하이닉스 M16 AGV 시스템	21.09.30	23.02.28	146	한국	83.5%	24
금호타이어 베트남 완제품 자동창고 PJT	21.12.30	23.06.30	106	베트남	89.2%	11
굴수협 통영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자동화창고	22.03.18	23.03.17	43	한국	80.9%	8
SK하이닉스 이천 컨베이어	22.05.10	23.02.28	85	한국	78.8%	18
SK하이닉스 우시 자동화창고	22.06.01	23.04.30	48	중국	54.3%	22
SK온 연청공장 화성공정 자동화시스템 구축	22.06.22	24.04.30	505	중국	30.6%	351
SK온 배터리 헝가리공장 자동화시스템 구축	22.09.21	23.09.30	148	헝가리	93.2%	10
동국제약 자동화창고 구축공사	22.09.26	23.11.26	66	한국	11.1%	59
SK머티리얼즈 창고 구축공사	22.11.01	23.08.31	54	한국	1.3%	53
SK온 배터리 연청공장 물류자동화 시스템 구축	22.12.22	24.01.31	300	중국	11.0%	267
한국넥슬렌 자동화창고 신설 및 개조	22.12.22	24.05.31	162	한국	0.3%	162
BOSK KY1 전후공정 창고	23.04.11	25.06.30	440	미국	0.0%	440
전극조립공정 자동창고 구축	23.04.21	25.11.03	313	N/A	0.0%	313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SK온,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거점 투자로 생산능력 6.5배 성장 전망

동사는 SK그룹 유일 물류자동화 핵심계열사로 향후 SK온의 글로벌 성장에 낙수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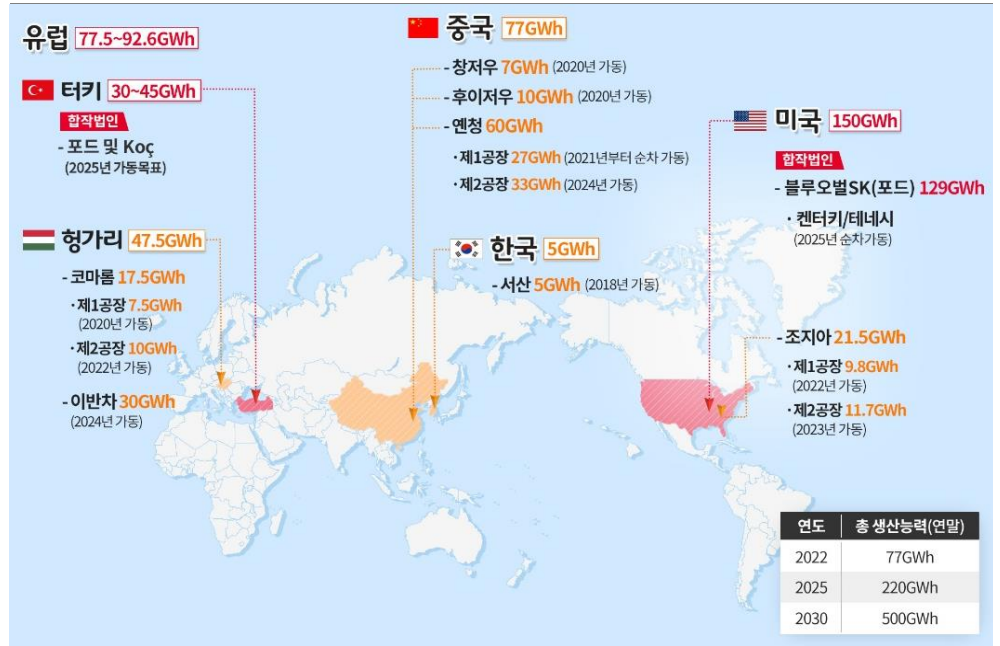
동사는 2022년부터 SK온의 헝가리(이반차)공장에 이어 중국(연청)공장에 물류자동화시스템을 납품하면서 2차전지 부문에서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하였다. 동사는 SK그룹의 유일한 물류자동화 핵심계열사로서 향후 2차전지를 필두로 한 SK그룹의 성장에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SK온은 중국에 이어 헝가리, 미국 등에서 꾸준한 투자를 통해 2017년 1.6GWh에 불과했던 생산능력이 2022년말 기준 77GWh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미국(조지아 1,2공장, 블루오벌SK)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2025년 220GWh, 2030년 총 500GWh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22년말대비 향후 8년간 6.5배나 성장하는 규모이다. SK온의 시장점유율 순위는 2019년 9위에서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점유율 5.9%로 5위로 부상하였다.

SK온, 현대차그룹과 2025년까지 미국 조지아에 연간 35Gwh 규모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 결정

지난 달 4월 25일 현대차그룹(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은 정기이사회를 통해 SK온과 미국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을 결정했다고 공시하였다. 총 투자비는 50억달러(원화 6.5조원)이며, 자본은 양사가 50%씩 보유한다. 합작공장은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 바도우 카운티에 연간 35GWh, 전기차 기준 연간 30만대분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향후 합작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을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다.

SK온 글로벌 배터리 생산거점 확보 계획



자료: SK온,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2년 실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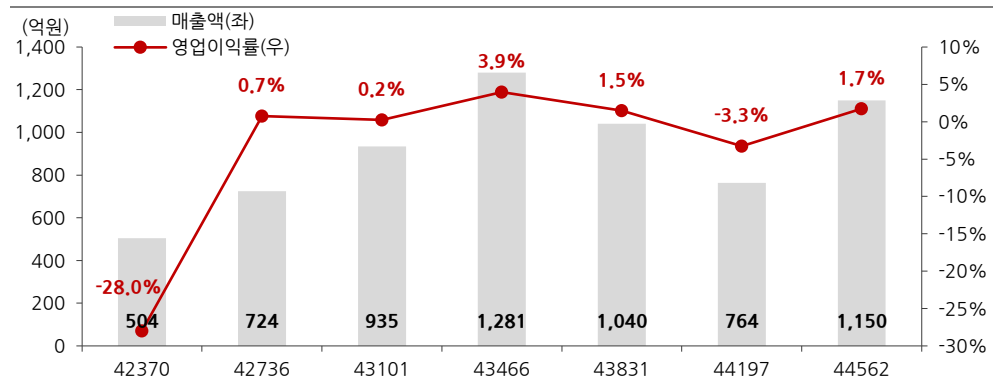
SK온 2차전지 물류자동화 신규 매출 반영으로 2022년 매출액은 YoY +50.6% 증가, 영업이익은 20억원으로 흑자전환

2022년 연결 매출액은 1,150억원으로 전년대비 50.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0억원으로 전년(-25억원 적자) 대비 45억원 증가하며 흑자전환하였다. 매출원가율은 92.9%로 전년대비 0.4%p 하락하였으며, 외형 증가와 원가율 하락으로 매출총이익은 82억원으로 전년대비 60.8% 증가하였다. 2022년 영업이익률은 1.7%로 수익성은 동종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차전지 부문에서 신규 매출이 반영되었지만, SK온의 적자 확대 영향으로 파트너사들도 마진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와 SK온 등 그룹사 Captive 매출액은 739억원으로 YoY +143.9%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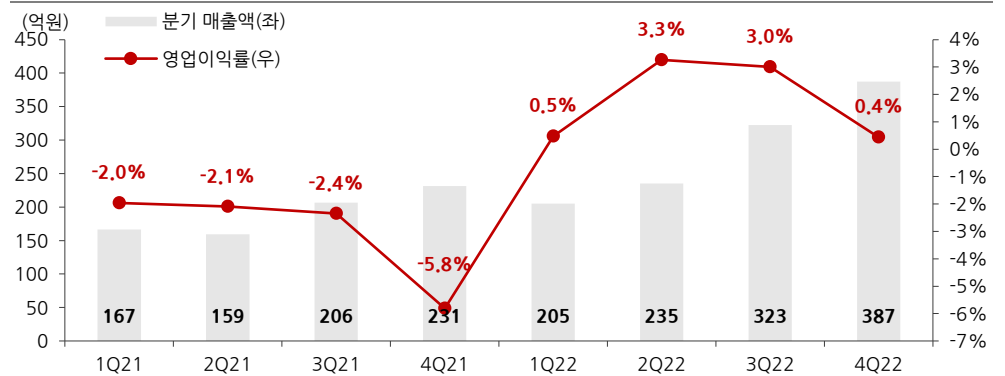
매출액 증가는 SK그룹向 Captive 수주가 증가하며 매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동사가 SK(주)로부터 수주한 총 953억원 규모의 SK온은 헝가리 이반차공장 및 중국 엔청공장에 대한 물류자동화 시스템 신규 수주분 중 325억원이 2022년 매출에 반영되었고, SK하이닉스 이천 M16공장 및 중국 우사공장의 자동화시스템 매출액도 344억원으로 전년대비 43.3% 증가해 전반적으로 SK그룹 Captive 매출액이 739억원으로 전년대비 143.9%나 급증하였다.

연도별 매출액 &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매출액 &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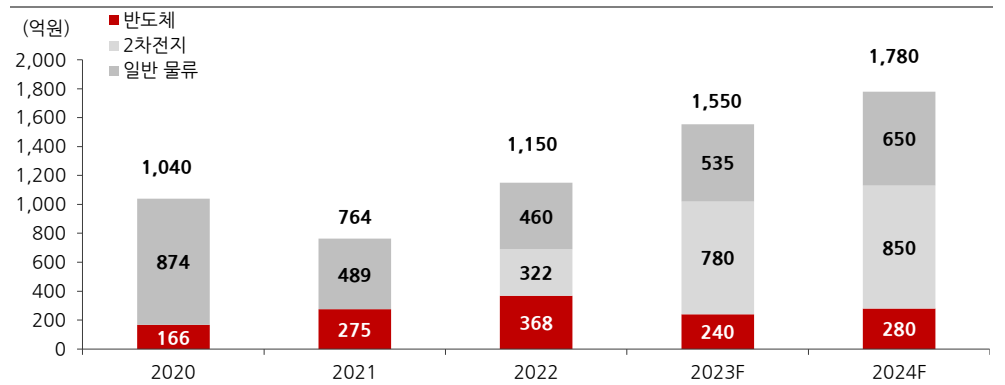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3년 실적 전망

2023년 매출액 1,555억원으로 YoY +35.2% 증가, 영업이익은 33억원으로 64.2% 증가할 전망

2023년 매출액은 1,555억원으로 전년대비 35.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3억원으로 64.2%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SK그룹 편입 이후 SK하이닉스 반도체에 이어 2022년부터 SK(SK온)로의 2차전지 물류자동화 수주가 급증하면서 SK그룹向 Captive 매출액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동사가 2022년 수주한 SK온 헝가리공장과 중국 옌청공장 물류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3건의 총 수주금액은 953억원이며, 2022년말 계약잔고는 628억원으로 대부분의 매출 반영이 2023년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해 2차전지 3건의 수주에 이어 올해 4월에도 SK온과 미국 포드자동차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발SK(BOSK)로부터 440억원을 수주했으며, 계약상대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차전지 전극조립공정 자동창고 구축에 313억원 등 2건을 추가로 수주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출에 반영될 전망이다.

부문별 매출액 전망



실적 요약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1,040	764	1,150	1,555	1,780
반도체 부문	166	275	368	240	280
매출비중 %	16.0	36.0	32.0	15.4	15.7
2 차전자 부문	-	-	322	780	850
매출비중 %	-	-	28.0	50.2	47.8
일반 물류 부문	874	489	460	535	650
매출비중 %	84.0	64.0	40.0	34.4	36.5
영업이익	16	-25	20	33	49
영업이익률	1.5	-3.3	1.7	2.1	2.8
당기순이익	-6	-6	25	36	50
순이익률	-0.6	-0.8	2.2	2.3	2.8
EPS (원)	-32	-29	123	178	248
매출증가율	-18.8	-26.6	50.6	35.2	14.5
영업이익증가율	-59.6	적전	흑전	64.2	48.7
순이익증가율	적전	적지	흑전	44.7	39.1

자료: 에스엠코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現주가는 2023년 추정실적대비 PER 38.7배, PBR 1.9배 수준

現주가는 동사의 2023년 추정실적대비 PER 38.7배, PBR 1.9배 수준으로 이는 코스닥지수평균(PER 20.7배, PBR 2.6배)대비 PER는 높은 수준이며, PBR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3개년(2020~2022) 평균 PBR배수는 2.1배로 現주가는 최근 3개년 평균대비로는 10% 내외 저평가 수준이다.

동사의 주가는 연초대비 25.3% 상승하여 동기간 코스닥지수 상승률(26.0%)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경쟁업체대비로는 현대무브스(+48.1%), 코윈테크(+39.1%)가 동사 및 코스닥시장대비 높은 주가상승률을 기록했고, 물류자동화 부문 국내 최대업체인 에스에프에이 주가는 연초대비 8.2% 상승하여 코스닥시장대비 주가상승률이 낮았다. 동종업체들의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배경은 2차전지 업종주가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2차전지 부문 물류자동화 설비 수주가 증가하면서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동종업체로는 에스에프에이, 코윈테크, 현대무브스 등이 있으며, 동사는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대비 영업이익률, ROE 등 수익성은 낮은 편

동사의 비교대상업체로는 에스에프에이, 코윈테크, 현대무브스 등이 있다. 동사의 2023년 추정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은 38.7배로 경쟁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PBR 밸류에이션은 1.9배로 현대무브스(3.5배), 코윈테크(2.5배)대비로는 낮고, 에스에프에이(1.1배)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다. 동사의 경우 지난 해부터 SK온으로부터 2차전지 수주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으나, 2차전지 부문 신규 매출 원년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아 주당순이익(EPS)이 작을 만큼 PER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대상 4개사 중 2022년 기준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경쟁업체 3개사의 영업이익률은 6~11% 수준으로 높은 반면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SK그룹 편입 이후 지난 6년간 평균 1% 내외(2022년 1.7%)로 가장 낮은 수익성을 기록했다. 2023년 추정 ROE로 비교해 보면 경쟁업체 3개사는 평균 11.4%로 전망되는 반면 동사의 ROE는 5.0%로 경쟁사 평균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다.

2차전지 외형 성장 국면에서 수익성 확보 여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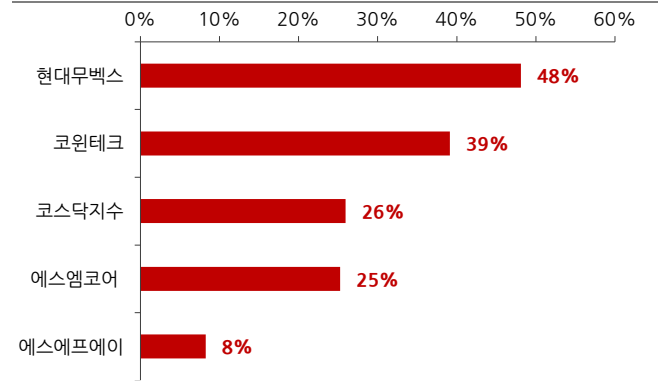
동사의 경우 2017년 SK그룹 편입 이후 반도체, 2차전지 등으로 Captive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향후 수익성 확보 여부가 주가 향방에 중요할 전망이다.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로는 그동안 수익성을 확보해온 것으로 보이나,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SK온을 2차전지 부문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에도 2차전지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성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동종업체 PBR-ROE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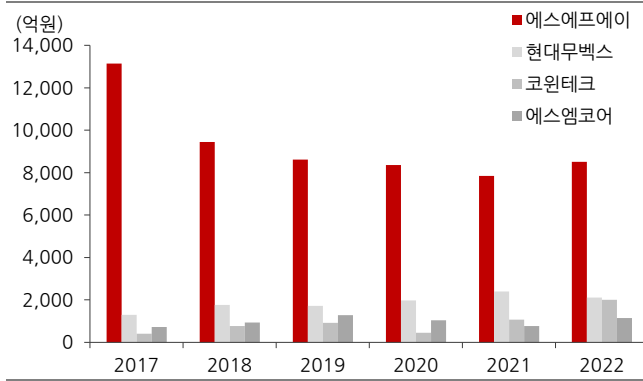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종업체 연초대비 주가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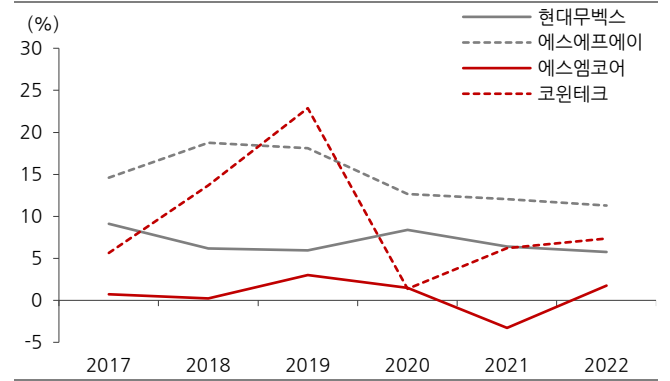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종업체 물류자동화 부문 매출액 비교



자료: 각사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식: SFA는 별도기업 기준

동종업체 영업이익률 비교



자료: 각사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종업체 밸류에이션 비교

(단위: 억원, 배, %)

		에스엠코어	에스에프에이	현대무백스	코원테크
시가총액		1,430	14,148	5,265	3,211
자산총계	2021	929	19,044	2,112	1,864
	2022	1,099	19,254	2,195	3,438
	2023E	1,135	21,026	2,381	2,840
자본총계(지배)	2021	688	11,161	1,267	1,044
	2022	702	10,961	1,546	1,255
	2023E	724	12,151	1,492	1,260
매출액	2021	764	15,649	2,401	1,064
	2022	1,150	16,844	2,105	2,012
	2023E	1,555	19,078	2,805	3,150
영업이익	2021	-25	1,889	154	66
	2022	20	1,609	122	148
	2023E	33	2,060	234	389
영업이익률	2021	-3.3	12.1	6.4	6.2
	2022	1.8	9.6	5.8	7.4
	2023E	2.1	10.8	8.3	12.4
당기순이익(지배)	2021	-6	1,167	81	56
	2022	25	772	93	49
	2023E	36	1,231	163	152
PER	2021	N/A	11.1	39.7	54.5
	2022	46.2	16.9	36.7	46.7
	2023E	38.7	11.5	32.3	21.1
PBR	2021	2.1	1.2	2.6	2.8
	2022	1.6	1.1	2.3	1.8
	2023E	1.9	1.2	3.5	2.5
ROE(지배)	2021	-0.8	10.9	7.3	5.5
	2022	3.6	7.0	6.6	4.3
	2023E	5.0	10.7	10.7	12.1
현금배당수익률	2021	0.7	3.3	1.0	0.3
	2022	1.2	2.4	1.0	0.4
	2023E	1.0	3.2	1.0	0.3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에스엠코어는 SK그룹 계열사로서, 2022년 기준 SK向 Captive 고객 비중이 64%이며 SK하이닉스 30%, SK온이 28% 차지한다.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의 선두주자인 SK그룹의 주력 공급사라는 점은 안정적 매출 확보 측면에서 강점이지만, 반대로 Captive 물량 비중이 높은 점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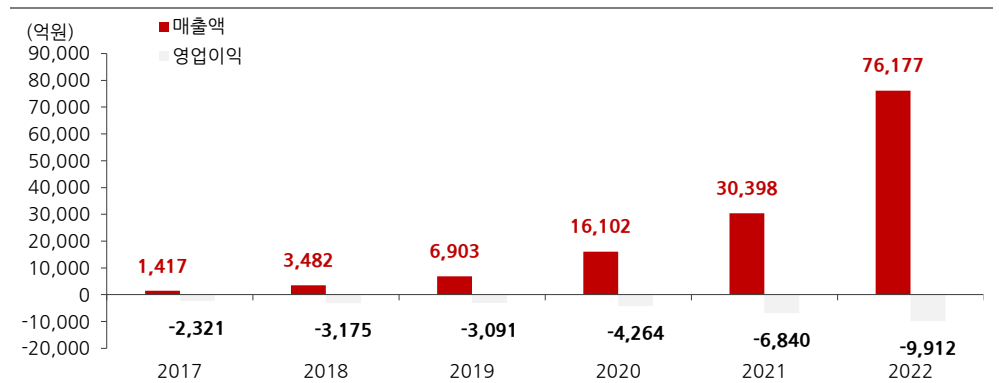
1 SK온 실적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

SK온 5년간 적자 지속

SK온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적자를 이어왔다. 특히 2022년부터 신규 공장 설비 생산능력에 주력하며 생산설비 확충, 수율 확보 등을 위한 지출이 많았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포드와 진행하던 튀르키예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SK온은 2023년 1분기에도 적자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2월 포드 F-150 픽업트럭에 납품하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데다가, 미국 공장의 낮은 가동률과 저조한 수율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SK온의 적자와 투자위축은 동사 2차전지 사업에 부담 요인이다. 동사 2차전지 사업은 지난해 SK온 헝가리공장과 중국 연청공장 수주에 성공하며 첫 매출이 발생했다. 2022년 2차전지 사업 매출액은 325억원,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대로 추정되며, 이익기여도는 크지 않다. 따라서 SK온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수익성 부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K온 연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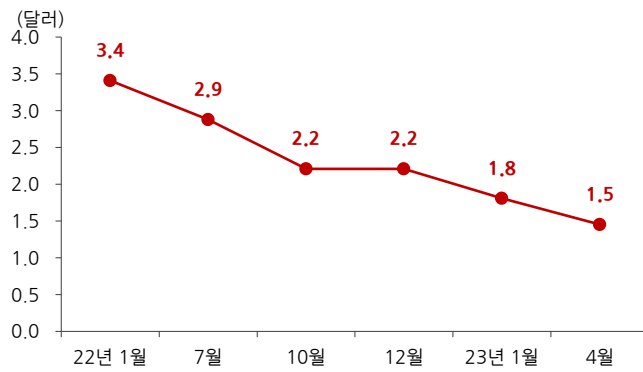
2 반도체 불황에 따른 투자 축소

SK하이닉스 2023년 Capex 50% 이상 축소

SK하이닉스는 2023년 1분기 3조 4,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분기 영업이익(2조 8,640억원)보다 6조원 이상 악화된 것이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적자 규모이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위축, 계절적 비수기, 고객사 재고 조정 등이 맞물리며 판매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4월에도 큰 폭의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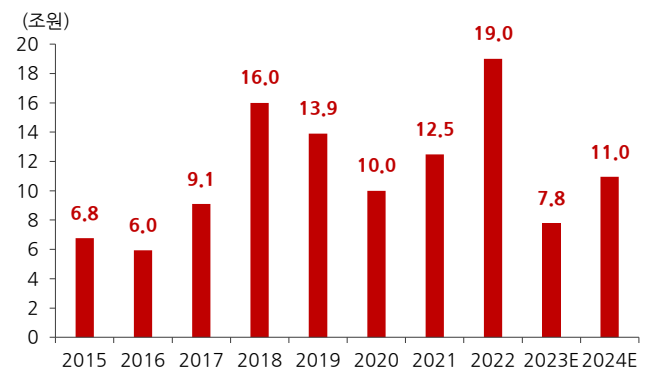
락세를 나타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4월 PC용 D램 범용제품(DDR4 1Gbx8 2133MHz)의 고정거래가격은 평균 1.45달러로, 전월 1.81달러 대비 19.89% 하락했다. 이처럼 올해 반도체 가격은 메모리를 중심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분기에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SK하이닉스는 2023년 투자 규모를 2022년 대비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는 동사 반도체 사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D램 가격 추이



자료: D램익스체인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DDR4 1Gbx82133MHz 기준

SK하이닉스 Capex 추이



자료: SK하이닉스, Fnguide 컨센서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1,040	764	1,150	1,555	1,780
증가율(%)	-18.8	-26.6	50.6	35.2	14.5
매출원가	941	713	1,068	1,455	1,659
매출원가율(%)	90.5	93.3	92.9	93.6	93.2
매출총이익	100	51	82	100	121
매출이익률(%)	9.6	6.6	7.1	6.4	6.8
판매관리비	84	76	62	67	72
판매비율(%)	8.1	9.9	5.4	4.3	4.0
EBITDA	40	2	46	60	73
EBITDA 이익률(%)	3.9	0.2	4.0	3.8	4.1
증가율(%)	-33.6	-96.1	2,853.0	28.2	22.9
영업이익	16	-25	20	33	49
영업이익률(%)	1.5	-3.3	1.7	2.1	2.8
증가율(%)	-59.6	적전	흑전	64.2	48.7
영업외손익	-15	19	4	11	11
금융수익	5	6	6	6	6
금융비용	9	5	8	6	6
기타영업외손익	-11	19	5	10	1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0	-5	24	44	60
증가율(%)	-99.1	적전	흑전	81.7	36.5
법인세비용	7	0	-1	8	10
계속사업이익	-6	-6	25	36	5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6	-6	25	36	50
당기순이익률(%)	-0.6	-0.8	2.1	2.3	2.8
증가율(%)	적전	적지	흑전	44.7	39.1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6	-6	25	36	50

현금흐름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87	-167	55	34	36
당기순이익	-6	-6	25	36	50
유형자산 상각비	24	26	26	26	24
무형자산 상각비	1	1	1	1	1
외환손익	22	2	1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23	-199	-21	-28	-38
기타	23	9	14	-1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5	-8	-8	-12	-2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5	0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1	0	3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1	-5	-7	-12	-15
기타	-30	-3	-4	0	-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	-14	-42	-12	-13
차입금의 증가(감소)	23	8	-8	1	1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4	-14	-10	-14	-14
기타	-7	-8	-24	1	0
기타현금흐름	-3	0	-2	-0	-0
현금의증가(감소)	151	-190	4	10	3
기초현금	145	296	106	110	119
기말현금	296	106	110	119	123

재무상태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F	2024F
유동자산	714	723	902	953	1,003
현금성자산	296	106	110	119	123
단기투자자산	35	35	35	35	40
매출채권	186	160	372	390	410
재고자산	7	9	13	18	20
기타유동자산	189	413	372	391	410
비유동자산	215	205	197	182	173
유형자산	191	178	167	153	145
무형자산	13	13	12	11	11
투자자산	2	2	2	2	2
기타비유동자산	9	12	16	16	15
자산총계	929	928	1,099	1,135	1,176
유동부채	202	226	386	398	401
단기차입금	52	62	50	50	50
매입채무	63	96	196	196	196
기타유동부채	87	68	140	152	155
비유동부채	29	14	10	13	15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29	14	10	13	15
부채총계	231	240	396	411	416
지배주주지분	698	688	702	724	760
자본금	100	100	100	100	100
자본잉여금	396	396	396	396	396
자본조정 등	-0	-0	-15	-15	-1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201	192	220	242	278
자본총계	698	688	702	724	760

주요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F	2024F
P/E(배)	N/A	N/A	46.2	38.7	27.8
P/B(배)	2.1	2.1	1.6	1.9	1.8
P/S(배)	1.4	1.9	1.0	0.9	0.8
EV/EBITDA(배)	29.7	858.2	22.7	21.6	17.5
배당수익률(%)	1.0	0.7	1.2	1.0	1.0
EPS(원)	-32	-29	123	178	248
BPS(원)	3,483	3,436	3,506	3,616	3,796
SPS(원)	5,193	3,811	5,741	7,762	8,885
DPS(원)	70	50	70	70	70
수익성(%)					
ROE	-0.9	-0.8	3.6	5.0	6.7
ROA	-0.7	-0.6	2.4	3.2	4.3
ROIC	-45.4	-4.5	3.3	4.5	6.3
안정성(%)					
유동비율	352.5	320.2	233.7	239.6	250.1
부채비율	33.1	34.9	56.4	56.7	54.7
순차입금비율	-39.2	-10.7	-12.5	-13.3	-13.7
이자보상배율	4.5	-6.5	4.0	7.0	10.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1	0.8	1.1	1.4	1.5
매출채권회전율	5.0	4.4	4.3	4.1	4.4
재고자산회전율	145.8	92.1	103.8	101.0	93.8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 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